

10강. 새를 찾아서

김주영



STEP 0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만다. 강원도 양양의 선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답사 일행을 찾는다.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목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 주겠다며 나서게 된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 두 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 한 ㉠“덴찌”를 갖고 있었다.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했는데 그 손전등은 새 전지를 갈아 끼운 지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다.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찾았다.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켜서 휘적고 다녔었지만 그것이 내 시선에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덴찌보다 몇십 배의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버스는 찾지 못했다. 버스는 새보다 몇백 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랬다.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그날도 역시 덴찌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다. 구태여 덴찌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간단했다.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필경 어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우리 집도 덴찌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약꼬, 니 말이 딱 맞따대이. 우약꼬, 내가 입때까지 고걸 생각 못 했대이, 니 말이 맞대이.”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썹을 달아걸어서 덴찌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우선 뒷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 둔 불빛을 이용하자니 심산에서였다.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의 이영의 커에도 새집들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의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살아 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 번째의 구멍 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마자 손끝에 와 닿는 몽글한 온기는 분명 새의 깃털이었다.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각 움켜쥐었다. 거의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선 누나가 말해 준 대로 꼭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의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내가 새의 깃털을 꼭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 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착각이었는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 치면서 구멍 집에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사래를 치는 동안 새는 구멍 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병치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글이다.
- ②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글이다.
- ③ 삶은 맹목적으로 무엇을 찾는 과정의 연속이란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다.
- ④ 무엇인가 찾는 노력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강조한 글이다.
- ⑤ 기성 세대의 탐욕 속에 상처받은 유년 시절의 삶을 통해 배려의 미덕이 필요함을 강조한 글이다.

0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
- ② 새 잡이와 답사일행의 상징성을 통한 인간 갈망의 한계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찾음과 놓침의 반복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 ④ 역순행식 구성을 통해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 ⑤ 문명의 발달로 편리함이 주어진에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10강. 새를 찾아서

김주영



10강

03 윗글의 내용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답사 일행이 탄 버스도 놓치고 목을 곳도 없었다.
- ② 청년의 손전등에 대해 '나'는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 ③ '나'와 누나는 텐찌꾼들로 인해 새를 잡지 못했다.
- ④ 살아 있는 새를 접한 세 번째 만남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 ⑤ 나는 새에게 물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누나의 말대로 꼭 움켜쥐어 새를 잡을 수 있었다.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버스를 찾을 가능성을 높여 주는 소재이다.
- ② ㉡: 과거의 사건이 현재형으로 일어나는 공간이다.
- ③ ㉢: 우리 집에도 새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 ④ ㉣: 우리 집에 있는 새집을 뒤져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 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 것이다.

05 ㉠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텐찌꾼들을 미워하거나 나무라는 일
- ② 집에서 쉽게 새를 잡을 수 있는 일
- ③ 더 이상 밤에 새를 잡으로 나갈 필요 없는 일
- ④ 텐찌꾼들의 눈치를 보며 새를 잡는 일
- ⑤ 집에서 새집을 찾아 나서는 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새의 깃털을 꼭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 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착각이었는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 치면서 구멍 집에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사래**를 치는 동안 새는 구멍 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내가 구멍 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 흠뻑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 집에서 빠져나 온 것과 누나가 무등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 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가 텅굴었다.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집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이.”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이.”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 지어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열살을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중략)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 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버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 덮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나래를 퍼덕이는 소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들려오곤 했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부에서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새가 퍼덕이는 소리 보다는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릎이며 팔꿈치와 뒤통수 같은 곳이 아리거나 쓰렸고 온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쓴 듯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나가 말했다.

“영구야, 가만있어 보래이.”

누나는 어둠 속을 더듬거려서 내 두 손을 꼭 잡아 쥐었다.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무마같이 뜨거웠고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새는 없었다. 형용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부터 희미한 그믐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벌써 새벽이었다.

10강. 새를 찾아서

김주영



10강

우리 네 사람은 답사 일행을 찾기를 포기하고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곤장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다.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두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줄면서 해뜨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 김주영, 「새를 찾아서」

06 밑줄친 어휘의 의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사래: 어떤 말이나 사실을 부인할 때 손을 휘젓는 일
- ② 야멸스러운: 원망스럽고 미운 구성이 엮보이는
- ③ 얼살을 먹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정신이 없어서
- ④ 혼전: 어지럽게 뒤섞여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
- ⑤ 불상사: 좋지 않은 일

07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나가 '나'보다 새를 잡는 것에 더 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누나의 행동으로 나는 마당에 나뭇굴었음에도 누나는 '나'를 외면하고 있다.
- ③ 처음으로 누나와 '나'가 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현이 있다.
- ④ 누나는 내가 나뭇굴어지는 동안 새를 잡아서 흥분된 표정을 짓고 있다.
- ⑤ 방으로 들어간 새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누나는 생각하고 있다.

08 새를 잡는 장면을 서술하는 표현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② 과장된 표현과 비현실적 요소를 동원하여 극적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새의 소리를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나'와 누나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④ 새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를 통해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노력 끝에 새를 잡을 수 있었던 경험을 현장감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09 '나'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나타난 공통점만으로 묶인 것을 고르면?

- ㄱ. 무언가를 계속 찾고자 함.
- ㄴ. 덴찌가 위력을 발휘함.
- ㄷ. 쉽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생각함.
- ㄹ. 탐색 과정에서 동반하는 인물이 있음.
- ㅁ. 탐색의 과정에서 고통과 수고로움이 존재함.
- ㅂ. 무언가를 찾는 일에 결국 실패함.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ㅁ, ㅂ
- ③ ㄱ, ㄴ, ㄹ, ㅁ, ㅂ
- ④ ㄴ, ㄷ, ㄹ, ㅁ, ㅂ
- ⑤ ㄱ, ㄴ, ㄷ, ㄹ, ㅁ, ㅂ

10 작가의 의도로 본 '덴찌'의 궁극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난했던 시절 '나'와 누나가 가질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 ② '새'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희망의 크기를 키우는 소재이다.
- ③ 현재로 오면서 일행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주는 소재이다.
- ④ 어둠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밝음의 이미지로 행동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⑤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던 '나'에게 무용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소재이다.

11 [보기]를 통해 이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성장소설이란 경험을 통해 미성숙에서 성숙의 과정으로 결핍에서 충족의 변화 과정을 보이는 소설을 말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을 통해 과거 경험적 자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창작 시기와 내적 시간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 ① '나'는 과거에 비해 현재에 더 많은 결핍을 느끼고 있다.
- ② '나'는 과거에 비해 성숙하고 결핍이 충족된 상태에 있다.
- ③ '나'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있다.
- ④ '나'의 내적 시간은 불행한 과거로 점철되어 있다.
- ⑤ '나'의 가난은 성장을 하는 장애 요소로 성숙될 수 없다.



정답 & 해설



01 [정답] ㉔ 유년시절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글이다. 배려의 미덕을 강조한 글이 아니다.

[오답 풀이] ㉑ 현재와 과거의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 ㉒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도출하는 글이다. ㉓ 삶은 무엇인가 맹목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다. ㉔ 실패를 겪더라도 그것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

02 [정답] ㉔ 문명의 발달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인공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이 탐색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 서술의 중심에 있다.

[오답 풀이] ㉑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나타난다. ㉒ 경험의 상징성을 통해 삶을 조명하고 있다. ㉓ 찾음과 놓침의 반복이 삶의 의미를 알게 한다. ㉔ 역순 행식 구성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03 [정답] ㉔ 세 번째 시도에서 새를 잡았지만 물리는 듯한 통증으로 구멍 집에서 손을 뺐고 새는 구멍 집을 빠져 나왔다. 따라서 누나의 말대로 움켜쥐어 새를 잡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㉑ 일행도 놓치고 목을 곳도 없을 때 청년들과 만나게 된다. ㉒ 낙산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존재를 느낀 것은 설악산 주차장이었다. ㉓ '나'와 누나는 댜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㉔ 세 번째 살아 있는 새와의 만남에 충격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04 [정답] ㉔ 답사일행에 관한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설악산 주차장에서의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㉑ 밝기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버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㉒ 자기 집에도 새집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 ㉔ 다른 댜꾼들의 간섭 없이 우리 집에 있는 새집을 뒤져 잡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05 [정답] ㉑ '그것'의 의미는 구태여 댜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06 [정답] ㉔ '야멸스럽다'는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07 [정답] ㉔ 누나는 새를 잡은 것이 아니라 방으로 들어간 새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은 거나 다름없다고 여겨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㉑ 누나의 야멸스러운 외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㉒ 누나는 부축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㉓ '그것은 사건이었다'는 표현은 새를 잡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㉔ 누나는 새가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잡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08 [정답] ㉑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와 누나가 새를 잡는 과정과 행동을 현장감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㉒ 비현실적 요소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㉓ 새의 소리보다 새를 잡기 위해 몸을 던지는 소리를 더 부각하고 있다. ㉔ 새의 움직임을 보면서 몸을 던지지만 쉽게 잡을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다. ㉔ 새를 잡지 못했다.

09 [정답] ㉔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공통점은 탐색의 지속, 댜꾼, 동반 인물, 탐색과정의 수고로움, 탐색 실패 등이다.

10 [정답] ㉔ 댜꾼은 유년시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현재는 과거에 비해 더 큰 위력을 가진 도구이다. 새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도구가 과거의 의미라면 현재는 더 밝음으로서 일행의 차량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소재이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는 이러한 경험들의 끝이 '실패'로 돌아옴으로써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던 '나'에게는 무용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한 것이다.

11 [정답] ㉔ '나'는 과거에 비해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숙한 상태와 유년 시절의 가난 보다도 결핍된 상태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 놓여 있다.

[오답 풀이] ㉑ 현재 더 많은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다. ㉓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표현은 없다. ㉔ 불행한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도 이어지면서 그 공통점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㉔ 가난이 성장을 방해하여 성숙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